

정유4사, 석유제품 수출 “콧노래”

3월 수출액 15억6000만달러 ... 원유 수입 줄어도 석유제품은 늘어

정유4사의 석유제품 수출 비중은 3월 원유 수입액 가운데 약 60%를 차지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월 원유 수입액은 27억973만달러, 석유제품 수출액은 15억6191만2000달러로 원유 수입액 가운데 석유제품 수출 비중이 57.6% 기록했다.

2009년 들어 원유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석유제품 수출 비중은 1월 36.7%, 2월 43.8%, 3월 57.6%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월 석유제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했지만 원유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수출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석유제품 수출단가는 배럴당 51.5달러로, 2008년 3월의 배럴당 115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석유제품 수출량은 2009년 들어 1월 2501만배럴, 2월 2680만배럴, 3월 3033만배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정유기업들이 고도화시설을 증설하며 석유제품 생산량을 끌어올려 내수 감소를 수출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적극화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디아와 중국, 베트남 등의 정유설비 증설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인디아 Reliance가 58만배럴, 중국 CNOOC가 24만배럴, 베트남 Petro Vietnam이 14만8000배럴 등을 증설했거나 추진하고 있어 아시아 역내 공급이 약 100만배럴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15>